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07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2월 2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12월 16일 총파업 사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16일 진행됐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등 완성차지부와 전국의 지역지부 조합원 12만여명이 총파업 투쟁에 적극 복무했다. 대전충북지부도 16일 파업 돌입 사업장 기자회견, 지부 총파업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 결의를 높였다. 지부는 16일 경고파업에는 17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 1,100여명의 조합원이 선도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이 강행된다면 이 날 보다 더 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16일은 하루 경고성 파업이었지만 이후에는 훨씬 거대한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막나가도 너무 막나가는 정권

박근혜 정권의 행보가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때문이라며 비난하더니, 급기야 국회의장을 찾아가 노동개악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며 협박까지 했다.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국가적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직권상정을 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청와대가 국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도 더 거세지고 있다. 16일 총파업 투쟁이 벌어지자마자 정권은 엄정한 사법처리 운운하며 탄압을 예고했고, 실제로 각 사업장들에서 업무방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부 소속 사업장 중 한온시스템(전 한라비스테온공조)가 16일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조합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내용까지 언급하며 파업의 결의를 꺾으려 하고 있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지부 총파업 결의했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 설사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사용주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일어나고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노조 지도부에 대한 손해배상은 몰라도, 조합원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런 탄압이 자행되는 것은 당장 겁을 줘서 투쟁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하겠다는 의도다.

지부는 사용자들의 억지탄압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한온시스템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부 전체, 금속노조 전체를 상대로 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부 총파업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탄압에 움츠러든다면 금속노조가 아니다. 탄압에는 더 큰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금속노조다. 한온시스템은 단단히 착각했다.

탄압에는 투쟁이다! 한온시스템 각오하라!

업무방해 성립 어려워, 노조 길들이기 의도

민주노총의 16일 총파업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별 업무방해, 손해배상의 고소고발이 벌어지고 있다. 지부 소속의 한온시스템(전 한라비스테온공조)도 업무방해 고소에 나섰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성립되기 어렵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야만 한다. 실제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현대차 300억원, 기아차 1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재고물량이 있었고, 실제 납품계약이 취소되지 않았고, 파업이 하루 2시간에 불과했고, 연말 생산목표 달성이 큰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약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4월 24일, 9월 23일도 총파업 투쟁이 벌어졌고, 국회 일정에 따라 16일 파업도 예고되었다. 사용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날 하루 2~3시간의 파업은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주지도 않았다. 업무방해 고소는 노조 겁주기, 길들이기 의도가 다분하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의도가 더욱 분명하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을 통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파업을 기획, 지시, 주도한 노조 간부들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합원들을 협박해서 노조를 흔들려는 의도인 것이다.

무죄 부분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8. 7. 2.자 총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08년 한미FTA 총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지부 정기 대의원대회, 총파업투쟁 결의

지부가 12월 14일 9기 1년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119명 중 76명이 참석하여 9기 1년차 사업계획을 비롯해 9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무엇보다 이 날 대의원들은 총파업 투쟁에 적극 복무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겠다는 결의를 높였다.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은 대의원들에게 힘차게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장을 조직하자고 당부했다. 지부장은 “엄혹한 정세다. 조합원들은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과 결의를 하는지 지켜보자 있다. 어느 때보다 힘차게 투쟁을 결의하는 대대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지부장은 “노동개악법 저지 없이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멸절한 사업장이 하루 아침에 구조조정, 복수노조로 투쟁사업장이 되는 현실을 지켜봤다. 이번 노동개악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악법이다”라며 “준비를 마친 사업장부터, 준비가 부족한 곳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조직해서 16일 모이자. 노동개악을 저지할 때까지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기대대에서도 지부결의금이 결정되었다. 지부는 그동안 7기 때부터 전 조합원들의 마음을 결의금으로 모아 투쟁사업장을 지원했다. 9기 1년차도 전 조합원 월2천원씩(년 2만4천원)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 결의금은 콜택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콘티넨탈지회, 보쉬전장지회, 피엘에이지회, 엔택지회, 한국타이어지회, 코스모링크지회 등 8개 지회의 투쟁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피엘에이 임금체불 해결되나?

피엘에이의 임금체불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월부터 이어진 임금체불로 조합원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피엘에이의 새로운 대주주는 10일 지부, 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용 보장과, 체불임금 해소에 대해 협의했다. 12월 24일까지 체불임금을 일괄지급하고 조합원 전체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1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제조업에 집중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피엘에이는 대전공장의 LCD재생사업 보다는 자원개발에 집중하며 경영을 부실하게 만들어왔다. 새로운 대주주가 제조업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지부, 지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고용보장이 확정되면 피엘에이 정상화도 시작될 것이다.

코스모링크 자본, 조심하라

코스모링크자본이 수상하다. 9기 시작부터 계속해서 지회와 마찰을 벌이고 있다. 희망퇴직을 벌이더니 무급순환휴직을 언급하며 현장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논의해야하는데 지회가 대책없이 거부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누가 봐도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협조할 노조가 어디있나?

사측은 계속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순환휴직을 논의하자고 나오고 있다. 희망퇴직, 순환휴직은 구조조정으로 가는 길이 뻔하다. 사측이 진짜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 고용보장을 확약하고 시작하는 게 순리다.

코스모링크에 갑을자본이 들어온 후 그동안 탐색전이었던 이번 구조조정은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면전이 시작되면 코스모링크자본은 크게 후회할 것이다. 코스모링크지회의 저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